

자동차 도색, 순 빨강과 백색은 안 된다고?

김원하 | 교통정보신문 발행인

☞ 우리 민족은 백의민족?

“옷이 날개”란 말이 있다. 평범하게 생긴 사람도 코디네이터가 골라준 옷과 구두, 그리고 알맞은 액세서리로 치장하면 몰라보게 달라진다. 사실 말이지 텔런트라고 보통 사람보다 유별나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예쁘게 보이는 것은 상당수 화장발 덕택도 있고, 코디가 잘된 의상을 입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코디에 신경을 쓴다. 남성만을 위한 화장품가게도 생겨나고 있고, 여성 전용이었던 귀걸이가 어느 사이엔가 남성들도 즐겨하고 있으니 참으로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다. 자기를 남에게 잘 보이려는 심리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대통령 내외도 쌍꺼풀 수술을 했을까. 그래서인가 요즘 성형수술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체형에 맞는 옷을 골라 입고, 구두나 백, 또는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은 한 마디로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백색(白色) 옷, 즉 흰옷을 즐겨 입었던 데서 비롯되어 ‘백의민족’이라고 불렸다. 언제부터 흰옷 입기를 좋아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래되었던 것 같다. 흰색은 순색(純色)이라고 하여 청정, 순결 또는 광명과 도의의 표상이 되어 신성한 빛을 뜻하기도 했다.

우리 민족의 흰색·흰옷 숭상은 뿌리 깊은 것으로, 민족정신을 뜻할 만큼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5행사상(五行思想)에서 흰색이 서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흰옷을 입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이론이 제기되었다. 고려시

대인 1357년(공민왕 6) 우필흥(又必興)이 동방(東方)은 목(木)으로 청(靑)에 해당하는데 백(白)은 금(金)이니 흰색 모시옷을 입는 것은 목제금(木制金)의 상(象)이라 하여 금지하게 했으며, 조선시대에는 명종 때 조식(趙植)이 흰옷은 소복(素服)이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상소하여 금지했다. <지봉유설 芝峰類說>에는 여러 차례 국난을 겪는 동안 흰옷을 입게 되었으나, 흰색은 상복(喪服)이라고 금지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 조선시대 금지령을 살펴보면 1398년(태조 7) 남녀의 흰옷 착용을 금지했고, 1401년(태종 1)에 다시 흰옷을 금지했다. 1425년(세종 7)에도 궁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흰옷 착용을 금지했으며, 1505년(연산군 11)에도 도성 안 여자들의 흰색 치마를 금지했다. 1738년(영조 14)에도 흰옷 착용을 엄히 금지했다.

우리나라를 가리켜 흔히 백의(白衣)민족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도시고, 시골이고 백의 즉,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선조들이 흰옷을 즐겨 입었던 것은 아마도 염료가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 앞으로 4년 간 자동차 색상 트렌드는 <블루>

자동차 메이커들이 신차를 개발하면서 신경을 쓰는 것 중 하나가 색상이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색상이 다른 여러 가지 유리나 전자재를 건물 벽에 붙여 놓고 색상을 선택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자동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그레이드에 맞지 않는 색상을 선택하면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는다. 르노삼성차

자동차 도색, 순 빨강과 백색은 안 된다고?

동차가 SM 520LE MT에 암녹색을 칠했다. 같은 모델의 다른 색상은 잘 팔렸으나 암녹색은 판매가 잘 되지 않았다. 같은 차종이지만 검정 색은 1만대가 훨씬 넘게 팔린 것을 보면 확실히 차종에 맞는 색상이 있나보다.

권위주의가 팽배하던 시절 대부분의 관용차는 검정색 일색이었다. 법관의 옷이 그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검정색 자동차가 도시를 누비니 도시는 어두웠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 이를테면 이탈리아에서는 검은 색의 중형이상의 차는 장의차라고 불릴 정도로 기피 색상이다. 최근에 들어와 도로에서 보이는 색상 가운데 밝은 색이 많아 졌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제각각 좋아하는 색상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흰색과 검은색을 선호하지만 외국은 어떨까? 가장 대표적인 민족과 색상의 관계로 이탈리아는 붉은 색, 프랑스는 청색, 독일은 은색, 영국은 녹색이 인기가 가장 높다고 한다.

색상이 민족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때 이탈리아 국민들은 다혈질이고 쉽게 흥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스포츠카 브랜드 페라리를 상징하는 색도 붉은 색이다.

자동차는 흰색이 경제적이다. 실내 온도가 검정 색에 비해 덜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작은 차량들을 조금이나마 부피를 커 보이게 하려면 밝은 색을 택하는 것이 좋다.

한 때 자동차 타이어에 컬러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도시를 밝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이어 색이 굳이 검정색인 것은 타이어가 힘 좋고 오래 가려면 주성분인 고무에 카본 블랙이라는 물질을 합성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물질의 색깔 때문에 타이어를 검은색으로 밖에는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탄화수소를 연소시켜 얻는 검은 분말인 카본 블랙은 고무와 합성되면 고무의 내구성을 무려 10배 이상 향상시킨다.

앞으로 4년 간 자동차 색상 트렌드는 <블루>일 것이

라는 전망이다. 세계적인 자동차 페인트 공급업체인 PPG는 앞으로 물빛 블루그린과 연기 색조의 연보라 등 드라마틱한 색조가 가미된 파란색 계통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노란색과 옐로우색은 더 짙고 따뜻해지며 빨강은 크랜베리나 포도주 빛으로 색깔이 깊어지고 짙은 갈색도 다시 등장한다는 것이다. 피츠버그에 본사를 두고 있는 PPG는 매년 가을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을 위해(?) 컬러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포드나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메이커들에게 앞으로 어떤 색이 유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PPG는 북미와 유럽, 일본,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호주 등지에 약 20명의 색조 전문가들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매년 자신들이 보는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들이 파악한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색을 만들어낸다.

현재 자동차 운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은 은색으로 생산되는 차량의 37%가 이 색으로 출시된다. 두 번째는 흰색으로 14.4%, 블루와 블랙이 뒤를 이어 각각 12.7%와 11%를 차지하고 있고 빨강과 녹색, 베이지색 등은 각각 10% 미만이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를 끌면서 운전자들은 점차 순박한 자연의 색조를 선호하고 있다.

☞ 1986년 승용차 도색 자율화 허용

지금의 자동차 색깔은 참으로 다양하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튀는 색깔을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정부가 어떤 색깔은 안 된다고 규제하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만해도 순빨강색과 순백색은 자동차의 색깔로 사용하지 못했었다. 승용차도 도색의 자율화가 허용된 것이 86년 9월이기 때문이다.

86년은 우리나라에서 제 10회 아시안게임이 개최된 해이다. 수년 전부터 정부는 물론 국민들 모두가 아시안

게임을 훌륭하게 치르기 위해 동분서주 할 때였다. 호남 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개통했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이 도로확장, 도색 등으로 환해져 갔다. 우리네 살림살이에서도 귀한 손님이 오신다면 집안청소라도 하기 마련인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큰 국제 행사를 치르는 만큼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게 준비를 했었다.

때맞추어 대우자동차에서는 전문구동 자동차인 <월드 카> 르망공장을 8월 28일 준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그런데 르망의 신차 발표 일을 얼마 안 남기고 대우자동차 기획실에서 필자에게 급하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었다.

애긴 즉, 르망공장을 준공하면서 <르망>을 더욱 튀게 하기 위해 르망의 색깔 가운데 순빨강과 순백색을 칠했는데 이것이 당국(당시 교통부)으로부터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우는 색깔 허가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신차 발표 일에 사용할 CF광고는 물론 카탈로그 같은 인쇄물의 인쇄를 모두 끝마친 상태였다.

이런 마당에 자동차의 도색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난리가 날만도 했다. 며칠 있으면 신차발표를 해야 할 판국에 인쇄를 다시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큰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에게 협조를 부탁한 것이다.

당시 자동차에 순 빨강과 백색을 칠하는 것은 경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대우 자동차는 순백색과 빨강 색을 자동차에 도색할 수 있도록 교통부에 건의했고, 교통부는 이를 받아들여 치안본부(지금의 경찰청)에게 자동차에 빨강 색과 백색을 도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는데 치안본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우차가 필자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은 당시 필자라도 신문사에서 경찰을 담당하는 기자여서 (경찰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한 것이었다.

필자는 이를 반려했던 담당자를 만나 이론적인 공방을 펼쳤다. 경찰에서 순백색을 자동차에 도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경찰백차' 라는 것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과거 자동차 공업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 경찰은 미군들이 사용하다가 불하하는 지프를 구입하여 국방색을

백색으로 도색 하여 사용해 왔었다. 그래서 경찰 차를 '백차'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때문에 일반인 승용차의 자동차에는 백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경찰 백차와 구별해 왔었다. 그런데 지금(당시나 지금이나)경찰 내에 백색을 도색한 경찰백차가 있느냐고 따졌다. 거의 청색(하늘색)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수긍을 했다.

그리고 순빨강은 소방차와 구분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필자의 항의(?)에 담당자는 재검토를 약속했고, 교통부가 다시 한번 치안본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치안 본부가 이를 협조하여 교통부는 승용차 도색을 자율화하도록 지시했다. 도색자율화에도 이런 속사정(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순빨강색과 순백색으로 도색한 르망이 첫선을 보이자 자동차 소비자들로부터는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 물론 자동차마다 어울리는 색깔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르망의 순빨강색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지금도 거리에서 가끔 빨강색의 르망을 만나면 그 때의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